

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제약/바이오]

모더나가 연 mRNA 암백신 시대

mRNA 기반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최초의 임상 3상 성공

모더나는 MSD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맞춤형 mRNA 암백신 인티스메란 오토진이 수술을 마친 흑색종 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인티스메란과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1차 평가지표인 무재발생존기간(RFS)과 주요 2차 평가지표인 원격 전이 없는 생존기간(DMFS)을 모두 충족했다. mRNA 기반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최초의 사례다. 발표 당일 모더나의 주가는 177% 급등해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으며, 세부 데이터는 향후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모더나, 계절성 백신 회사에서 항암 플랫폼 기업으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실적의 계절성도 뚜렷하다. 2026년 2분기 매출은 1.45억 달러, 상반기 누적 매출은 약 5억 달러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백신 접종 시즌인 하반기에 집중된다. 이번 임상 3상 성공은 모더나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암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은 계절성이 없고, 장기간 투여되는 데다, 재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감염병 백신과는 수요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티스메란은 흑색종 외에도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신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임상 2·3상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성공은 단일 적응증의 성과를 넘어, 모더나 개인맞춤형 mRNA 항암 플랫폼이 임상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3상에서 처음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RNA 암백신 상용화 가시화, 국내 수혜 기업에 주목

국내 기업 중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은 알테오젠이다. 인티스메란의 병용 약물이 키트루다인 만큼, 보조요법 시장의 확대는 키트루다의 치료 영역 확장과 함께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피하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의 처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MSD가 고위험 1기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큐렉스와 인티스메란의 병용 임상 3상에 이미 착수했다는 점은 향후 mRNA 암백신 병용요법이 피하주사 제형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에스티팜 역시 수혜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후발주자들의 mRNA 암백신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초기 임상 물량의 CDM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나, 삼양바이오팜, 한미약품 등 mRNA 전달체·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